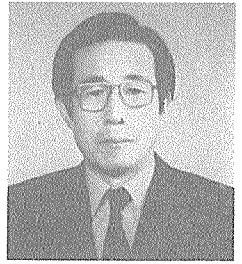


## 긴 안목으로 和合과 前進을

洪承采 韓國컴퓨터(株) 社長/本會 監事



지난 3년여간 우리는 얻은 것도 많았지만 잃은 것도 많은 세월이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어느 쪽이 더 많았는가 하는 문제는 각자의 人生觀, 國家觀에 따라 해답이 달라 질 수 있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政治圈의 混亂과 政治人들의 무책임한 言行으로, 특히 經濟는 많은 후퇴를 보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는 이게 이거구나 하고 정신을 차렸지만 國際社會에서의 우리 産業의 경쟁력은 너무 뒤쳐진 것 같다. 우리들의 競爭國들은 그사이 우리들과의 격차를 後進國들은 좁혔고 先進國들은 보다 넓혔다. 우리는 밖으로부터 通信市場, 農產物市場 등 시장 개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勞使紛糾 등으로 輸出市場 또한 어

두운 그림자에 덮혀있다.

우리는 이제 待望의 '90年代를 맞아 좀 더 냉정을 되찾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매사를 보아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 會社는 전 사원의 자질향상을 첫째 目標로 생각하고 있다. 먼저 技術的 實力向上을 위한 國內外 연수는 물론 자체 Group Seminar 등으로 能力을 向上 시켜 일인당 生産性을 높여 지난해에 있었던 高率의 임금상승 압박에서 벗어나고 競爭力을 갖추기 위해서이다. 다음은 國家, 社會 그리고 會社의 구성원으로서 생각할 아량과 지성을 갖도록 교양강좌를 마련할 계획이다.

무조건 조금 더 차지하겠다고 바둥거리는 政治人, 企業主, 勤勞者 등 우리 모두의 아귀다툼이 長期的으

로 각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원들의 사고방식이 불건전한 가운데 몇몇사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그 會社가 발전할 수 없고 대부분의 國民이 過消費, 퇴폐 무질서에 젖어 있는 가운데 일부 國民만의 努力으로 國家社會가 발전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오늘만이 있는 것이 아니며 오늘보다 未來가 더욱 소중한 것이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살아야 할 이 땅, 이 나라가 약속장식의 틀이 철저히 지배하는 냉엄한 國際社會에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속에 둘러 쌓여 있는가 함께 생각하는 社會人이 된다면 우리의 未來는 아직은 밝다고 하겠다.

